

---

---

#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연구현황과 형태 비교

---

---

한 정 훈  
(부산대학교)

---

머리말

I. 일본 중세목간 연구 현황

II. 신안선 하찰목간의 형태 재분류

III.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 분석

맺음말;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형태 비교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314).

● 투고일: 2015. 8. 7.    ● 심사일: 2015. 8. 19.    ● 게재확정일: 2015. 9. 16.

## 요약

본 연구는 근래에 네 척의 침몰선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하찰목간의 형태적 특질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였다. 고려시대 하찰목간의 형태를 일본 중세 목간이나 신안선 목간과 같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상호간의 형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목간의 연결방식에 직결되는 상·하단부의 형상을 기준으로 간소하게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신안선 하찰목간과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짐[荷物]에 연결하기 용이한 홈형 목간이 동아시아 중세 하찰목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후대가 편리하여 일본 중세시기에 널리 사용되었던 구멍형 목간은 신안선 목간에서 12%정도인데 반해, 고려 목간에서는 단 1점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려 하찰목간에 비해 신안선 목간은 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상단부의 홈·구멍과 함께 하단부의 뾰족한 형상[尖形]도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신안선이 高價의 다양한 물품을 국제교역을 통해 장거리 항해를 펼쳤기 때문에 하찰을 보다 확실히 荷物에 연결시키기 위한 조처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려시대 하찰목간을 단순히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 보다 荷物의 연결방식에 따라 꼬리표형, 부착형 그리고 갈피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짐의 종류에 따라 포장·운반재나 荷札의 형태도 결정되었다.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와 하물의 종류를 분석해 본 결과, 뾰족 형태의 포장재는 세 유형의 하찰목간이 연결되었지만, 도자기 종류의 포장용기는 홈과 같이 확실한 연결 부위가 있는 ‘꼬리표형’ 하찰목간만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荷札木簡, 신안선 목간, 목간 형태, 흠형 목간, 구멍형 목간

## 머리말

최근 10년간 고려시대사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연구주제 중 하나로 木簡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 경주 안압지에서 신라 목간이 출토된 이래로 줄곧 고대시기의 것에 한정되다가,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태안선’에서 34점의 목간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마도1·2·3호선에서 170여점이 出水되었다. 네 척의 침몰선은 船體 뿐 아니라 당시의 적재물품, 船上의 생활용품과 함께 목간을 품고 있어 그 역사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빛날 것이다.

현재까지 고려시대 해저 침몰선과 出水 목간을 소개하는 보고서와 몇 편의 관련 연구논문을 통해 침몰선과 목간 그리고 적재 화물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1)</sup>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해저의 船體와 적재 화물이 전하지 않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木簡이 자리하고 있다. 목간을 비롯한 출수 유물을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려는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연구와 방향을 달리하여 목간의 형태적인 측면에 주안을 두어 일본 중세 목간이나 신안선 목간과 같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발굴보고서는 다음과 같다(2009, 『高麗靑瓷寶物 船-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2010, 『태안마도1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1, 『태안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2, 『태안마도3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그리고 출수 목간 내용을 활용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문경호, 2011, 「泰安 馬島 1號船을 통해 본 高麗의 漕運船」 『한국중세사연구』 31; 한정훈, 2011, 「12·13세기 전라도지역 私船의 해운활동」 『한국중세사연구』 31; 신은제, 2012, 「마도 1·2호선 出水 목간·축찰에 기재된 곡물의 성격과 지대수취」 『역사와 경계』 84; 강재광, 2013, 「馬島3호선 木簡을 통해 본 金俊政權의 支持基盤」 『東方學』 29; 고경희, 2015, 「태안 마도3호선 해양유물 중심으로 본 고려시대 음식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2).

고려시대 목간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 내용을 근거로 동아시아 중세목간과의 형태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 상황에서 중세 목간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고려시대 목간 연구가 초창기인 만큼 일본학계와 한국고대사학계의 경우처럼 목간의 용도와 형태에 따른 분류와 같은 기초 작업을 통해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 목간의 비교는 목간 연구의 주요 방법이면서 하나의 연구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모습은 굳이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목간연구가 활발한 한국고대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sup> 하지만 활발히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학계의 목간에 관한 비교 연구는 古代史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研究史를 고려할 때에 중세시기 목간의 비교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 중세 목간의 형태를 비교하는 배경에는 일본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 중에서 고려 목간의 형태 연구에 유효한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사실 목간은 그 자체가 ‘斷片’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포하는 역사적 사실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목간 자료가 일정량 이상 집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출수된 태안선~마도3호선 목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태를 분류하고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일본 중세목간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활용할 연구방법과 함께 형태 비교에 유용한 내용도 추려 볼 것이다. 아울러 고려 목간과 出水 상황이나 성격 면에서 유사한 신안선 하찰목간의 연구 성과도 형태를 중심으로 재검토

2) 강윤욱, 2008, 「동북아 지역 木簡 기록 문화의 특징 小考」, 『인문과학연구논총』 29; 김경호, 2010,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목간 출토 및 연구 현황」, 『한국고대사연구』 59; 尹在碩, 2011,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東洋史學研究』 114; 이경섭, 2013,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목간을 통해서 본 한국 목간의 형태와 내용 분류에 대한 연구」, 『신라사학보』 27.

할 것이다. 일본 중세 목간, 신안선 하찰목간 그리고 고려시대 목간 각각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축적되지 못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도 있지만,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비교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sup>3)</sup>

## I. 일본 중세목간 연구 현황

197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일본 중세 목간 연구의 중심에는 4,000여점의 木簡類가 출토된 草戸千軒町遺跡(이하 草戸유적)이 자리하였다. 물론 草戸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의 90%에 해당하는 3,600여점이 부스러기 목간이므로, 고대 목간의 혈통을 잇는 중세목간은 5.7%에 해당하는 227점 정도이다. 草戸유적 목간에 관한 초기 연구는 형태에 관한 고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角材가 전체 목간의 40~50%에 이르고, 또한 구멍을 뚫은 목간이 60% 전후에 이를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이 확인되었다.<sup>4)</sup> 이 비율은 고대 일본의 목간 형태와도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목간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짐[荷物]에 부착한 荷札이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付札로 보기 힘든 상당수의 목간을 작성자 자신의 기억 혹은 매매·거래나 물자의 조달·이동 등에 관련된 사무용 메모로 이해하였다.<sup>5)</sup> 이러한 초기 연구는 목간의 기재내용과 형태의 관련성을 염

---

3) 宋代 泉州船 木牌를 비롯하여 중국 중세의 목간을 함께 살펴보지 않은 채 동아시아 목간의 비교라고 말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후술하듯이 신안선 목간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4) 志田原重人, 1981, 「草戸千軒町遺跡出土の中世木簡-形態を中心に-」, 『木簡研究』 3.

5) 廣島縣草戸千軒町遺跡調査研究所, 1982, 「總說」, 『草戸千軒-木簡1-』.

두에 두었지만 명확히 해명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중세 목간의 대표 연구자인 水藤 眞은 목간의 형태와 기재내용을 연결시켜 이해하였다. 기재내용의 측면에서 구멍을 뚫은 목간과 홈을 낸 목간의 형태상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구멍이 있는 목간에는 가격·물품명·수량·연월일과 같은 단어만이 기록되어 있고 動詞와 같은 述語가 보이지 않아 작성자의 메모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홈이 있는 목간은 앞의 내용 뿐 아니라 조사·조동사를 동반하고 수신인[宛名]까지 표기된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 무엇인가의 의미를 상대방에 전달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차이가 있었다. 전자를 商業上의 당사자의 메모로, 후자를 상품수송의 荷札로 각각 간주하고 후자를 신안 해저 침몰선에서 나온 목간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6)</sup>

그리고 石井 進은 구멍이 뚫린 角材 木簡이 고대 목간에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草戸木簡에서만 출토되는 만큼 그것에 주목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목간의 형태 분류에 관해서는 발굴 보고서(『草戸千軒-木簡1』, 1982년)에서 25종으로 세밀하게 분류한 것에 대해 너무 번잡하여 형태와 내용 그리고 이용법의 관계를 추구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멍을 뚫었다는 草戸목간 최대의 특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크게 (a)구멍을 뚫은 것, (b)홈을 낸 것, (c)한쪽을 뾰족하게 가공한 것, (d)기본형을 비롯한 그 외의 것 네 종류로 재분류하였다. 이 분류법에 따라 주요한 가공 형태와 목간의 내용 그리고 이용법 상호간의 관계 파악이 보다 쉽게 되었다.<sup>7)</sup> 즉 메모용 목간으로 사용된 (a)형 목간은 記錄簿적인 용도를 지녔고, 이후에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나 기록물

6) 水藤 眞, 1984, 「木に墨書すること:中世木簡の用例」 『史學雜誌』 93(11), 59~60쪽; 1995, 『木簡·木札が語る中世』, 東京堂出版(재수록).

7) 石井 進, 1986, 「木簡から見た中世都市‘草戸千軒町」 『國史學』 130: 2005, 「中世史と考古學·民俗學」 『石井進著作集』 第10卷, 岩波書店(재수록).

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a)형 목간의 특징인 구멍은 큰 의미를 지녔는데, 끈으로 꿰매어 정리·분류하는 데에 유용하였다. 이와 달리 (b)상단부에 홈이 있는 목간 형태는 송부된 물품에 부착된 하찰 목간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8)</sup>

이러한 목간의 용도와 형태의 관련성은 16세기 목간이 대거 출토되었던 一乘谷유적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荷札이라 생각되는 목간에는 상단부에 홈이 있지만, 付札에는 홈이 있는 것과 구멍을 뚫은 것 두 종류가 함께 확인된다는 것이다.<sup>9)</sup> (a)형 목간의 구멍이나 (b)형 목간의 홈은 모두 물품에 부착하기 위해 가공한 것이다. 하지만 기억이나 메모를 기록한 목간의 경우는 목재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연결하여 정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a)구멍형 목간이 적합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草戸유적과 一乘谷유적의 목간 사례를 통해 구멍 보다는 홈이 짐 [荷物]에 부착하기에 용이한 상단부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에 반해 付札은 상단부에 홈을 판 것과 구멍을 뚫은 것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는데, 이 또한 기능에 대응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0)</sup>

水藤 眞과 石井 進의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목간이 출토된 遺構의 양상을 고려하여 목간류의 변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sup>11)</sup> 14세기 중반 고대 목간의 전통을 계승한 (b)홈이 있는 목간에서 15세기 후반부터는 (a)구멍이 있는 목간으로 변해 간 것으로 파악하였다.

8) 廣島縣立歴史博物館, 2000, 『草戸木簡集成』 2, 56~57쪽.

9) 水藤 眞, 앞의 책, 140~142쪽.

10) 水藤 眞, 앞의 책, 165~166쪽.

11) 下津間 康夫, 1996, 「木簡類の変遷と諸問題」, 『草戸千軒町遺跡調査報告V-中世瀬戸内の集落遺跡-』, 廣島縣草戸千軒町遺跡調査研究所編; 下津間 康夫, 2002, 「草戸木簡にみる流通・金融活動」,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92. 이와 함께 草戸유적에서 출토된 목간 전체를 조사하여 관련 데이터를 정리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草戸木簡集成』을 간행하였다(廣島縣立歴史博物館編, 1999·2000·2004, 『草戸木簡集成』 1·2·3).

전자(흠형) 보다 후자(구멍형)의 목간은 문자를 쓸 공간이 좁고, 기재내용이 더 단편적이었다. 이러한 목간 형태상의 변화는 목간 이용자들이 고대 이래의 목간 전통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용법에서 보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형태를 요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12)</sup>

위의 내용과 같이 일본 중세 荷札木簡의 주요한 형태인 상단부에 흠을 뚫던 (b)형 목간의 하단부 형상은 뾰족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단부의 모양은 다분히 當代의 짐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뾰족하게 한 것은 그러한 방법이 편리하였기 때문임에 틀림이 없다. 하단부를 뾰족하게 한 가공법[尖形]도 상단부에 흠을 판 형태와 함께 일본 고대로부터 ‘화물에 부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sup>13)</sup> 이러한 하단부의 尖形 여부와 관계없이 (b)형의 흠을 낸 목간 형태는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유효하여 古代이래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하찰목간으로 널리 사용되었다.<sup>14)</sup> ‘좌우에 흠을 파놓은’ 형태의 하찰목간은 종교적 목적을 지닌 呪符와 함께 일본 중세 목간의 주종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水藤 眞은 草戸목간 뿐 아니라 중세 문헌자료 속에서 확인되는 목간의 用例를 기재내용과 형태 그리고 기능까지 감안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 일본 중세목간의 용례 중 ‘지배’·‘권리의 부여’·‘처분’의 목적을 띤 목간은 어떤 지배관계를 동반하여 지속적인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목간의 내용은 중앙 지배자나 장원영주의 京都에서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村이나 町の 일상생활에서

12) 鈴木康之, 2007, 「木簡が語る經濟活動」 『中世瀬戸内の港町: 草戸千軒町遺跡』, 新泉社.  
 13) 友田那々美, 2003, 「古代荷札木簡の平面形態に関する考察」 『木簡研究』 25, 263~264쪽.  
 14) 후술하는 신안선 목간과 고려 목간에서 이러한 내용이 여실히 확인된다.  
 15) 水藤 眞, 앞의 책, 116~117쪽 요약.

【표 1】 일본 중세목간의 용례에 따른 분류<sup>15)</sup>

종류		내용	札의 외형	표시 방법
지배	法令	규범	駒形・大	사람이 많은 곳에 게시
	掟(규정)	규범・약속한 사항	橫長板	
	平時 禁制	일정 사항의 금지	駒形・橫長板	
	戰時 禁制	군대의 난폭한 행위 금지	駒形・大	해당 입구에 게시
	宿札	軍의 존재 명시	縱長板?	출입구에 게시
	榜示	영역 명시	杭・札	경계
	用水札	用水의 배분	?	취수구
권리의 부여	過書	통행의 허가	駒形・小	휴대・제시
	補任札 등	상업 특권의 부여	駒形・小	
	개별 安堵	다양한 특권 등		
	應分の 부담	각종 부담	橫長板・大	
처분	点札	재산・경작권 등의 몰수	駒形・大?	해당 장소에 게시
	懸賞札	범인의 체포 협력 의뢰 등	駒形・大?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
	籠名高札	위법자에 대한 처분		
표시	名札	소유의 명시	小	해당 물품에 부착
	付札	물품이나 내용물 표시		
	荷札	수신인・물품 등 표시		
그 외	周知札	다양한 사항의 알림	大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
	낙서 1	世評에 대한 야유와 조롱	大	
	낙서 2	본인의 만족을 위해		어떤 곳이라도
	기념	본인의 기념		해당 장소
	備忘	자신의 기억		해당 물건이나 장소

지배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을 기록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표시’를 위한 名札・付札・荷札과 ‘그 외’의 것인 周知를 위한 札・낙서・기념을 위한 것・비망을 위한 메모 등은 앞의 세 용례와는 여러 측면에서 달랐다. 이들 목간은 대부분 개인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권리관계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명찰이나 부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연구현황과 형태 비교

찰·하찰 등은 그 소유를 표시하는 권리를 동반하지만 그것만의 권리로, 單品에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sup>16)</sup> 일본 중세목간 중에서 위의 분류표에 맞지 않는 것도 일부 존재하지만, 목간 전체를 검토하여 중세 목간의 분류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어서 水藤 眞은 발굴조사로 확인된 중세 목간도 일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2】의 내용과 같이 출토 사례가 많은 목간은 荷札과 메모 같은 것이고, 다음으로 종교 관계의 札도 다수 확인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표 2】에 소개한 荷札에는 물품명·수량·수신처(인)·발송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형태는 長方形의 板材 상단부에 홈을 두고 하단부는 뾰족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에 비해 付札은 상단부에 홈을 낸 것과

【표 2】 일본 중세 목간 출토 현황<sup>17)</sup>

유적 및 장소	유적의 성격 및 출토 목간 개요
草戸千軒町 (廣島縣 福山市)	13세기중엽~16세기 초기 港町の 성격을 지닌 중세 集落유적, 상업 관련 하찰·부찰 목간 뿐 아니라 茶·香 관련 鬪茶札·鬪香札, 신앙·주술의 존재를 보여주는 板塔婆·呪符·御札 등 출토
大坂(大阪市)	豊臣秀吉이 건설한 大坂城 3丸와 高麗橋 일대에서 海魚의 ‘하찰’ 다수 출토
一乗谷 (福井縣 福井市)	戰國시대 越前國을 지배한 朝倉氏의 城과 성 아래 町에서 ‘하찰·부찰’ 뿐 아니라 종교관계 목찰·遊技札 등 출토
清洲(愛知縣)	清洲城 아래의 朝日西遺跡과 愛知縣 一宮市の 荊安賀遺跡에서 市の 개최일을 알리는 告知札 출토
沓掛城 (愛知縣 豊明市)	沓掛城의 북쪽 언덕에 자리한 생활 유적에서 복수의 ‘付札’ 뿐 아니라 목제품·陶器·금속제품·석제품·식물 잔해 출토
勝間田城(静岡縣)	年貢의 上納 관련 ‘하찰’ 5점 출토
仙台城(仙台市)	仙台城 2·3丸에서 쌀가마니에 부착된 ‘하찰’ 출토
東京 中里遺跡	奈良末~平安初 年貢 납부 때에 가마니에 꽂은 ‘하찰’ 출토
曾万布遺跡(福井縣)	室町시대 遺構에서 수신자에 敬稱이 붙은 ‘하찰’ 3점 출토

16) 水藤 眞, 앞의 책, 115~121쪽.

17) 水藤 眞, 앞의 책, 122~166쪽 참고. 中世木簡이라고 소개하였지만 近世시기의 목간

사학연구 제119호(2015. 9)

平安京 左京 遺構 福井市 99橋	豊臣秀吉 집권기 ‘荷札과 掟(규정)의 목찰’ 출토 江戸시대 ‘하찰목간’ 발견
東京大學 構内	大宴會에 사용된 유적으로 將軍·前將軍의 행차를 준비하면서 고향으로부터 기증받은 물자에 부착되어 있던 ‘하찰’ 다수 출토
小川城遺跡 (静岡縣 焼津市)	城主가 인근 주민에게 보이는 금지항목을 적은 ‘禁制의 木札’ 출토
芳原城蹟 (高知縣 春野町)	大般若經의 轉讀에 관계하는 다수의 ‘祈禱札’ 출토
初田館跡(兵庫縣)	鎌倉시대와 16세기 전반 大般若經의 轉讀에 관련된 ‘祈禱札(呪符札)’이 각각 4점과 1점 출토
法華山 一乘寺 (兵庫縣)	15세기 ‘雨請하는 목찰’ 2장 출토
道場田遺跡 (静岡縣 焼津市)	山林의 임회를 허락하는 ‘山札’ 출토
津田トッパナ遺跡 (大阪府 枚方市)	
馬場屋敷遺跡 (新潟縣 白根市)	茅場の 임회를 허락하는 ‘茅札’ 7점 출토
北條泰時·時頼邸跡 (鎌倉市)	도로 개설 및 보수공사 구역을 설정한 목찰(起點札) 출토
城之内遺跡(岐阜縣)	
柳之御所跡(岩手縣)	바느질할 衣服의 내용을 기록한 ‘메모용 横木’ 10점이 관련 도구와 함께 출토
二之宮東遺跡 (群馬縣)	江戸시대 중기 어떤 役의 순번을 나타내는 목찰 출토
延行條里 <sup>18)</sup> (山口縣 下關市)	11세기후반 혹은 12세기 정기적인 토지조사 때에 사용된 ‘表示札’ 3점 출토

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중세 목간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기능을 가졌던 근세 목간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著書에서 平安京 右京 遺構에서 米·麥·大豆 등의 가마니에 부착한 하찰 10점이 출토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延曆(782~805년) 연간의 토층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延行條里 출토 목간’은 石井進의 성과를 추가하여 실었다.

18) 石井 進, 2005, 「中世遺跡の諸問題-木簡を通じてみた-」, 『石井進著作集』 第10卷, 岩波書店, 137쪽 참고.

구멍을 뚫은 것 두 양식이 함께 존재한다. 또한 권리를 보증한 茅札・山札・過書札은 장방형과 將棋의 駒形인 板材에 휴대의 편리성을 위해 구멍을 뚫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2】와 같이 출토 사례가 많은 荷札이나 메모札은 앞의 문헌자료(【표 1】)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고, 반대로 문헌에서 다수 확인되는 禁制・掟의 경우는 그 출토 사례가 매우 적다. 그래서 水藤 眞은 실제로 출토된 목간을 移動의 여부에 따라 ①이동하는 것(荷札/茅札・過書札 등), ②이동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동은 가능; 付札・名札/遊技札), ③이동하지 않는 것(請雨札・起點札・勝示札/禁制・掟/경계의懸札)으로 나누기도 하였다.<sup>19)</sup>

앞의 【표 1】과 【표 2】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중세목간의 용도는 개인의 메모나 하찰・부찰 뿐 아니라 지배 목적의 禁制・掟(규정)의 목찰, 종교・주술 관계 札(祈禱札・請雨札), 遊技札(鬪茶札・聞香札), 권리를 부여하는 목찰(茅札・山札) 그리고 내용 표시나 정보를 전달하는 表示札(告知札・起點札) 등 실로 다양하였다. 특히 呪符木簡과 같이 신앙・주술에 관계하는 것의 수량이 많고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어 그 비중이 높은 점은 일본 중세 목간의 주요 특징으로 民衆信仰史 분야에 좋은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일본 중세시기에는 지배를 위한 법령이나 규정에서부터 생활에 필요한 일상 정보에까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목간을 揭示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 고대시기에 다양한 용도의 목간이 확인되는 것<sup>21)</sup>까지 고려하면, III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물품에 연결된 荷札木簡이 주로 확인되는 것이 출토 사

19) 水藤 眞, 앞의 책, 165~167쪽.

20) 石井 進, 2005, 「中世木簡の一形態」 『石井進著作集』 第10卷, 岩波書店, 107~108쪽; 高橋一樹 編, 2007, 「中世の出土文字資料をよむ」 『史料の新しい可能性をさぐる』, 總研大日本歴史研究専攻・國立歴史民俗博物館.

21) 최근의 연구성과에서 신라 목간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이경섭, 2013, 「서론: 신라 목간의 출토황과 분류」 『신라 목간의 세계』, 景仁文化社, 28~32쪽).

례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본 중세나 한국 고대와 달리 목간의 활용도가 줄어들어 荷札에 한정하여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II. 신안선 하찰목간의 형태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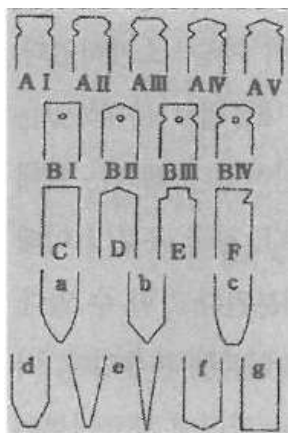
앞의 I 장에서는 목간의 형태와 기재내용의 관련성, 용도 분류 그리고 출토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중세 목간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여러 내용 중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草戸목간의 형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은 점, 목간의 형태와 용도와의 관련성 정도는 기억할 만하였다. 하지만 일본 중세의 대표 목간인 草戸목간은 메모용 목간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고려의 하찰목간과의 형태 비교를 위한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중세의 목간 대부분이 출발 혹은 도착지점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운송 도중의 船體에서 出水되었던 고려 목간과는 성격 자체가 달랐다. 이로 인해 양자간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아주 제한적인데 반해, 신안선 목간은 앞의 草戸목간과 달리 침물선에서 출수된 하찰목간이었으므로 비교 대상으로 매우 적합하였다. 이 장에서는 신안선 목간의 연구 성과를 형태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문서목간		꼬리표[附札] 목간		기타 목간					
문서	기록			짐꼬리표 [荷札]	물품꼬리표 [物品附札]	주술·의례용	학습용	문서표지 [題籤軸]	기타
	장부	집계	전표	기타					

1976년부터 시작된 신안침몰선의 발굴조사 도중에 1982년에 328점, 1983년에 36점 도합 364점의 목간이 확인되었다.<sup>22)</sup> 발굴조사 때 참여하였던 尹武炳은 이들 하찰 목간의 형태를 荷物에 끈으로 묶어 연결하기 위한 가공방법 이외에 頭部나 하단부의 형태까지 포함하여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상단부 형태는 13개, 하단부 형태는 7개 도합 20개로 세분하였다. 상단부 형태 중 홑형을 A로 하고 頭部の 모양에 따라 A I ~AV 5개 형태로, 구멍형 B를 頭部 모양에 따라 B I ~BIV 4개 형태로 그리고 기타의 상단부 형태를 C~F로 구분하여 총 13개 형태로 나누었다. 마찬가지로 하단부 형태도 비슷한 정도, 圭形의 모양에 따라 a~g 7개 형태로 구분하였다(【그림 1】 참조). 특히 목간 형태 중 홑형 목간(A형)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3)</sup>

이후 日人 학자들은 신안선 목간이 일본의 중세 목간일 가능성을 제기 하면서 연구를 이어나갔다.<sup>24)</sup> 岡内三眞은 고대~중세 동아시아 목간을 염두에 두고 신안선의 목간 형태에 대해 분류하였다. 신안선 목간을 일본 중세 목간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草戸목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였다. 그에

- 
- 22) 현재 新安船의 船籍은 元나라의 대형 무역선으로 이해하고 있지만(山本信夫, 1997, 『新安海底遺物』 『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 10(對外交渉), 雄山閣; 김병근, 2004, 『수중 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森本朝子 저·김정환 역, 2005, 『아시아 해저고고학』 『바다의 아시아』 5, 다리미디어), 승선자와 목간 내용에 일본과의 관련성이 깊어 신안선 목간의 國籍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신안선을 일본선적의 민간 사무역선으로, 목간을 일본 중세 목간으로 이해한 견해(岡内三眞, 1987, 『新案沈船出土の木簡』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도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개연성을 열어 두고 고려 목간과의 형태 비교에 주력하려 한다.
- 23) 尹武炳, 1984,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 1985,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編 III); 1988, 「木牌」 『新安海底遺物』(綜合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하지만 등글거나 세모 혹은 네모의 頭部 모양이나 尾部의 세부적인 모양이 하찰목간의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목간의 분류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4) 西谷正, 1985·1986, 「新安海底發見の木簡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0·31; 岡内三眞, 위의 논문.



【그림 1】 신안선 목간 형태 분류(尹武炳 견해)

서 ㉠下端의 모양, ㉡홈의 모양, ㉢上端의 모양, ㉣구멍[穿孔]의 유무와 穿孔방법, ㉤중앙부의 단면형 5개 기준에 따라 총 27개 형식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동아시아 목간의 형식을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신안선 목간 364점 중에 상단 혹은 하단 등이 훼손되어 그 형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33점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중세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 비교하여 完形 遺存率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고려 목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박 내에서 목간의 기능이 유지되던 도중에 갑작스런 침몰로 인해 그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25)</sup> 岡内三眞는 신안선의 완형 목간 331점을 위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수량과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이 중 구멍이 있는 목간이 50점이고, 구멍이 없는 목간은 291점으로 집계하였다.<sup>26)</sup>

하지만 필자는 앞선 尹武炳과 岡内三眞의 신안선 목간의 형식 분류가 지나치게 번잡할 뿐 아니라, 여타 목간과의 비교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찰목간의 기능에 직결되는 형태상의 기본 요소, 즉 상·하단부의 형상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 대해

25) 뒤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목간도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목간이 전체 175점 중에서 125점(전체의 71%)에 이른다.

26) 岡内三眞, 앞의 논문, 544~545쪽. 그런데 『신안해저유물』 보고서(1984·1985) 내용을 집계한 결과, 상단부에 구멍이 있는 목간(B I ~BIV)은 40점이 확인된다. 또한 完形 목간이 331점인 점을 감안하면 40점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안선 목간 중 상단부에 구멍이 있는 것은 전체의 12% 가량 차지한다.

지적인 이용현의 견해가 참고된다. 그는 신안선 목간의 형태 분류에서 윤무병은 상단형태를 축으로 삼았는데 반해, 岡内三眞은 하단형태를 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즉 양자는 각각 상단위주-하단보조, 하단위주-상단보조의 분류방법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이용현은 목간의 기능성을 고려할 때에 윤무병의 상단위주 분류법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sup>27)</sup> 실제로 목간의 상단부에 홈이나 구멍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장방형(기분형)일 경우는 荷物에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반해 하단부의 형태(尖形·圭形·方形이나)에 따라서는 하찰목간의 부착방법 보다는 끈을 처리하는 방법 정도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sup>28)</sup>

물론 이러한 생각과 달리, 岡内三眞는 물자의 종류에 따라 목간 하단부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단부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기재내용의 분석을 통해 하단이 뾰족한 형태[尖形]의 목간은 藥材가 든 나무상자나 나무통에, 方形의 목간은 銅錢에 각각 부착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뾰족한 형태[尖形]와 方形의 중간 형태인 圭形の 목간은 목간의 용도가 더 넓었기 때문에 약재와 동전 뿐 아니라 도자기에 부착된 경우도 확인된다. 이처럼 목간 하단부 형태의 차이는 하물을 취급하는 방법에서 기인하고, 그것은 하물의 종류와 포장방법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신안선 목간은 구멍의 有無를 비롯한 상단부보다는 하단부의 형태로 분류하는 방법이 기능적인 면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sup>29)</sup>

27) 이용현, 2006, 「신안 해저발견 목간의 형식과 선적(船積)」,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534~536쪽. 아쉽게도 상단 위주의 분류방법이 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28) 하찰목간에서 뾰족한 하단부의 역할은 짐(荷物)에 폭 찢리기 위함이 아니라, 상단부를 묶은 끈으로 짐을 결박하고 끈의 아래를 끼워 넣어 고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岡内三眞, 앞의 논문, 549~553쪽)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논지를 펼친 岡内三眞이 상단부 형태의 기능적인 측면과 기재 내용까지 함께 비교·검토하였다면, 보다 명확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하단부 형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에 신안선 목간의 형태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sup>30)</sup> 여기서는 우선 동아시아 중세 하찰목간 형태의 비교를 위해 상·하단부의 형태가 목간의 용도나 사용방법(포장 및 결박방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신안선 목간의 형태를 아래의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3】 신안선 목간의 상·하단부 형태 분류<sup>31)</sup>

형식 번호	비율(순위)	특징		형식 번호	비율(순위)	특징	
		하단부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
223형식	17.2%(1)	尖形	홈형	133형식	4.8%(8)	尖形	홈형
132형식	14.8%(2)	圭形	홈형	332형식	4.5%(9)	圭形	홈형
233형식	9.4%(3)	尖形	홈형	1103형식	3.9%(10)	尖形	구멍형
331형식	8.8%(4)	方形	홈형	103형식	3.3%(11)	尖形	장방형
101형식	6.6%(5)	(方形)	장방형	231형식	3.0%(12)	方形	홈형
1102형식	6.6%(6)	圭形	구멍형	232형식	2.1%(13)	圭形	홈형
131형식	6.3%(7)	方形	홈형	102형식	1.8%(14)	圭形	장방형

위의 【표 3】에 제시한 목간은 전체의 93%에 해당한다. 나머지 7%의 목간은 13개 이상의 형식에 걸쳐 3점~1점 가량 확인되는 異形 목간과

29) 岡内三眞, 앞의 논문.

30) 목간 하단부 형태가 하물의 종류와 포장방법에 따라 달라졌다는 岡内三眞의 견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검토할 계획이다.

31) 목간의 형식 번호와 비율(순위) 그리고 하단부의 형태 분류는 岡内三眞의 성과에 따랐다(앞의 논문, 542~545쪽). 하지만 상단부의 형태는 일본 중세 목간과 고려 목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에 의거하여 구분하였다.

형태 미상이므로 일단 제외시켰다. 【표 3】과 같이 어느 정도 유형화가 가능한 목간 형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하단부의 모양은 尖形·圭形·方形으로, 상단부는 홈형·장방형(기본형)·구멍형으로 각각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sup>32)</sup> 【표 3】에서 상단부가 홈형이고 하단부가 尖形인 목간은 223·233·133형식의 세 종류로, 전체 목간의 31.4%를 차지한다. 따라서 상단부 좌우에 홈이 있고 하단부가 뾰족한 목간이 신안선 목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세 형식으로 나뉜 이들 목간의 차이점은 홈이 있는 상단부의 頭部가 4각형·6각형·8각형인가의 차이이다. 하지만 頭部の 형태가 하찰목간의 연결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태 구분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목간 형태는 상단 홈형-하단 圭形의 목간으로 전체의 21.4%(132형식+332형식+232형식)을, 그리고 상단 홈형-하단 方形의 목간이 전체의 18.1%(331형식+131형식+231형식)을 각각 차지하였다. 신안선 목간의 형태를 선행 연구처럼 많게는 27개로 구분하기보다 상·하단의 주요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그 비율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신안선 목간 상·하단부 형태의 비율

구분	상단부 형태			하단부 형태 <sup>33)</sup>		
	홈형	장방형	구멍형	尖形	圭形	方形
비율	70.9%	11.7%	10.5%	38.6%	29.8%	24.7%

32) 岡内三眞은 상·하단부 모양을 여섯 가지 이외에 반원형이나 돌출한 方形 등으로 더 세분화하였다. 하지만 그 수량이 극소수일 뿐 아니라, 이러한 상·하단부의 세밀한 구분이 하찰목간의 사용방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섯 가지 분류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33) 【표 3】과 【표 4】 내용은 岡内三眞의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지만, 3매 이하로 확인되는 목간의 형식은 제외시켰다. 岡内三眞은 논문 결어에서는 이들 목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목간 325점 중 尖形(尖頭形) 목간이 134점(41.2%), 圭形이 105점

【표 4】와 같이 상단부 좌우에 홈이 있는 목간 형태는 전체의 70.9%로, 장방형(기본형, 短冊形; 11.7%)이나 구멍형(10.5%) 보다 월등히 많았다. 대개 고대 목간의 예에서 장방형(단책형) 목간은 文書木簡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안선 목간은 예외 없이 모두가 荷札木簡인 점은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sup>34)</sup> 또한 이 비율을 통해 구멍 보다 홈에 끈으로 묶어 荷物에 연결하는 방식이 훨씬 편리하였음도 알 수 있다.

하단부의 형태는 운무병에 의해 작성된 최초 발굴보고서에서 方形과 畝족함의 정도에 따라 a~g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던 만큼 다양하였다 (【그림 1】 참조). 그것을 岡内三眞이 크게 尖形·圭形·方形으로 단순화시켰다. 하단부 형태 중 尖形이 38.6%로 가장 비율이 높지만, 그 외의 圭形이나 方形도 25~30%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았다. 하단부 尖形の 비율이 38%인 점은 方形의 하단부가 70% 이상인 草戶목간<sup>35)</sup>이나 하단부가 畝족한 목간의 비율이 4.72%(【표 6】 참조, 6/127)에 지나지 않는 고려 목간을 떠올리면 매우 특징적이다. 草戶목간은 제외하더라도, 荷札인 고려 목간에 비해 꽤 높은 편이다. 이처럼 신안선 하찰목간은 고려 목간과 달

(32.3%) 그리고 方形이 86점(26.5%)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34) 이용현, 앞의 책, 543쪽.

35) 草戶목간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志田原重人(1981, 「草戶千軒町遺跡出土の中世木簡-形態を中心に-」 『木簡研究』 3, 143~146쪽)에 의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草戶목간의 상·하단부 형태를 간략화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다른 목간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수의 목간 형태(ex. 측면에 구멍이 있는 목간 등)는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형식 번호	비율(순위)	특징		형식 번호	비율(순위)	특징	
		하단부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
143형식	24.23%(1)	方形	구멍형	120형식	6.17%(5)	尖形	장방형
103형식	22.91%(2)		구멍형	100형식	3.97%(6)	圭形	장방형
111형식	11.46%(3)		홈형	102형식	3.97%(6)	圭形	구멍형
142형식	11.46%(3)		구멍형	합 계	84.17%		

리, 상단부의 홈 뿐 아니라 하단부의 尖形과 같이 荷物에 연결하기 위한 가공의 흔적이 많이 확인된다. 신안선 목간은 상단부의 홈이나 구멍에 매듭된 끈으로 荷物を 묶은 다음, 尖形의 하단부에 끼워 하물과의 부착을 더욱 단단히 하였다. 이것은 신안선이 高價의 다양한 물품을 元나라로부터 일본 열도로의 장거리 航運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정보 전달과 포장 및 운송방법이 요구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 Ⅲ.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 분석

지금까지 출수된 고려 목간의 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고려시대의 목간은 신안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물이 운송 중이던 船體 안에서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력을 가진 상태로 해저에서 出水되었다. 이런 연유로 고려 목간은 앞의 【표 1】 목간의 용도에 비춰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물품에 연결되어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荷札木簡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밝혔듯이, 기재내용에서 수취인(처)이 연월일, 발송자(처), 물품종류와 수량 보다 더 중시되어 거의 모든 목간에서 확인되고 있다.<sup>36)</sup> 이 또한 이들 목간이 모두 하찰목간이었기 때문이다.

36) 임경희, 2012, 「해양 발굴 문자 자료, 고려시대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역사연구회 발표자료, 2쪽.

37) 임경희, 위의 발표문 재인용. 이외에도 울산 반구동유적에서 출토된 목간 1점을

【표 5】 고려 침물선 출수 목간 현황<sup>37)</sup>

구분	태안선	마도1호선	마도2호선	마도3호선
수량	20점	73점	47점	35점
발송자 (발송지)	향리(강진)	향리·次知 (나주·해남· 장흥)	향리·次知·使 者(고창·정읍)	次知·사자·男(여수)
수취인	개경의 고위관직 자·하급무반· 상인	개경의 관직자 (고위~하급)	개경의 관직자 (고위~하급)	江都시절 무인집정자(김준) 김준세력(유천우·신윤화) 관청(重房·都官·三別抄 등)
주요화물	도자기	곡물·젓갈	곡물·젓갈	고급 어패류·곡물·布
난파연대	1131년	1208년	1197~1213년	1265~1268년

고려 목간의 형태에 관한 연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발굴보고서 木簡 부분을 집필한 임경희의 논고가 유일하다.<sup>38)</sup> 고려시대 목간이 최초로 확인된 태안선의 경우는 목간의 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상의 특징과 연결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상단부 양쪽에 홈이 있는 목간은 도자기 꾸러미에 묶는 ㉠꼬리표형, 한쪽만 홈이 있는 목간은 도자기에 끼워 넣고 함께 포장하는 ㉡부착형 그리고 홈이 없는 평평한 모양의 목간은 꾸러미 사이에 끼거나 놓아두는 ㉢갈피형 목간으로 구분하였다.<sup>39)</sup> 이러한 태안선 목간의 형태에 관한 적극적인 분류와 달리,

고려시대의 荷札로 추정하고 있다(김현철, 2009, 「울산 반구동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4). 하지만 본고에서는 圭頭形의 목간이면서 기재내용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단 유보해 둔다.

- 38) 임경희, 2009, 「태안 대섬 고려 목간의 분류와 내용」 『高麗靑瓷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마도 1호선 목간의 분류와 주요 내용」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마도2호선 목간의 분류와 내용 고찰」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1, 「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목간과 문자』 8, 한국목간학회. 다만 마도3호선 목간에 대해서는 형태를 분류하지 않았다.
- 39) 임경희, 2009, 위의 조사보고서 논고, 458~459쪽.

이후 마도1·2·3호선 목간의 형태는 흠의 有無를 큰 기준으로 삼아 나누었다. 그리고 흠이 있는 목간은 흠의 위치에 따라, 흠이 없는 목간은 상·하단부의 모양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형태를 구분하였다.<sup>40)</sup>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고려 목간의 형태를 하나의 분류체계 속에서 구분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네 척의 침물선에서 수습한 175점의 목간 중에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목간은 【표 6】과 같이 125점 정도이다.<sup>41)</sup> 물론 이 중에서 소수의 경우는 상·하단부가 缺落되었지만 주변의 정황을 참고하여 형태를 추측하였다. 목간의 형태 분류는 선행 연구의 지적처럼 고려 목간이 荷札木簡임을 전제로 하여 대표적인 연결방식인 흠의 有無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sup>42)</sup> 그래서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는 크게 목재를 다듬는 것 이외에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②장방형(기본형)과 목간에 흠을 파 넣은 ①흠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②장방형에서 흠 이외의 가공 흔적이 있는 목간을 ③기타로 묶었다.<sup>43)</sup>

①흠형, ②장방형 그리고 ③기타로 크게 분류한 고려 목간의 형태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 ③기타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 고대나 일본 중세시기 목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요 분류 기준에 尖形(V자형)을 비롯한 하단부의 형태나 頭部の 형상을

40) 임경희, 앞의 마도1호선·마도2호선 조사보고서 논고.

41) 형태를 비롯하여 고려 목간에 관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해당 발굴보고서를 전적으로 활용하였다.

42) 마도1호선 71번 목간·마도2호선 3번 목간 등은 상단부 좌우에 흠이 있으면서 하단부는 尖形인 목간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적 특징이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에 하단부의 뾰족한 모양[尖形] 보다는 상단부의 흠이 연결방법 등을 고려할 때에 하찰목간의 형태로서 더 우선시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43) 【표 6】의 구분과 임경희의 그것과의 차이점은 장방형을 하나의 목간 형태로 설정한 점, 목간 형태의 분류를 荷物에 연결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해한 점 등이다. 하지만 목간의 사용방식에 따라 꼬리표형, 부착형, 갈피형으로 구분한 임경희의 견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표 6】 고려 목간의 형태 분류

(단위: 점)

형태	태안선 목찰	마도1호선 목찰	마도2호선 목찰	마도3호선 목찰	통계		
					합계	비율	
① 홈형	a.상단부 좌우에 홈 있음	4	37	33	22	96	76.8%
	b.상단부 한쪽에 홈 있음	2	3			5	
	c.상·하단부에 홈 있음		1			1	
	d.중간부에 홈 있음			1		1	
	e.하단부에 홈 있음			1		1	
	f.상단부에 異形 홈 있음				1	1	
	소계	6	41	35	23	105	84.0%
② 장방형	1	9	3		13	10.4%	
③ 기타	a.하단부가 뾰족한 모양	1	2	1		4	
	b.상단부에 구멍 있음		1			1	
	c.상단부가 斜線인 모양	1		1		2	
	소계	2	3	2		7	5.6%
형태 확인이 가능한 목간	9	53	40	23	125	100%	

포함시켜 목간의 형태를 나누기도 하였다. 하단부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앞 장의 신안선 荷札목간의 형태 분류가 해당한다(【표 3】 참고). 이에 반해 고려시대 목간에서는 하단부의 뾰족한 형태가 기능적인 측면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태 분류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③기타에 포함시켰다. 또한 목간의 頭部 형상은 신안선 목간 뿐 아니라 고대시기의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형태 분류에서도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44) 고려


44) 頭部の 형상에 따른 분류를 통해 부분적으로 목간의 지역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목간의 頭部 모양도 一자형으로 처리한 목간이 다수이지만, 꽃봉우리처럼 예쁘게 마무리한 목간(마도2호선 23번 목간 등)이나 角지게 깎은 목간(마도2호선 27번 목간 등)도 확인되어 이러한 분류가 가능할 정도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頭部의 모양이 하찰목간의 연결방식에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 기준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③기타에는 하단부를 뾰족한 형태로 깎은 목간(a), 상단부에 구멍을 낸 것(b) 그리고 상단부를 斜線으로 깎은 것(c)만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를 구분할 때에 기능적인 측면에 주안을 두어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 중세 목간 형태와의 비교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고려 목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①홈형 목간에서 ①-a. 상단부 좌우에 홈을 낸 형태가 대부분이다. 전체 목간의 76.8%를 차지하는 ①-a형 목간은 매우 효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태안선 목간에서 형태가 확인되는 목간 9점 중 ①-a형 목간이 4점(44.4%)이, 마도1호선은 53점 중 37점(70%)이, 마도2호선은 40점 중 33점(83%)이 그리고 마도3호선은 23점 중 22점(96%)이 각각 해당하였다. 이 데이터의 차이는 각 침몰선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그 요인 중 하나로 각 船體에 실렸던 짐[荷物]의 종류와 그것의 포장 및 운반재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말미에 다시 후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①-a형 목간은 ③-b형(구멍형)과 함께 荷物에 연결방식에 따라 ‘꼬리표형’ 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홈형 목간에서 a형 이외의 b~f형이 소수이지만 최소 1점씩이라도 확인되고 있는 점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상단부의 한쪽에만 홈을 낸 ①-b형 목간은 5점으로, 태안선 19번 목간과 마도1호선 28·29번 목간은 a형과 같이 刀子로 정확히 ‘>’ 모양을 파놓은 홈이 확인된다. 반면에 태안선

이해하였다(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연구』 3, 한국목간학회).

1번과 마도1호선 21번 목간은 전형적인 ‘>’ 모양이 아닌 ‘J’의 홈이지만 이 또한 荷物에 부착하기 위한 부위로 판단된다.<sup>45)</sup> ①-c형 목간은 마도1호선 8번으로, 상단부 좌우에 홈이 있는 통상적인 a형에 하단부에까지 홈이 있어 상·하단이 끈을 통해 荷物에 보다 확실히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46)</sup> 또한 마도2호선 1번 목간은 중간부에, 2번 목간은 하단부에 ‘>’ ‘<’ 모양의 홈이 각각 확인된다(d·e형). 이들 ①의 b~e형 목간은 ‘>’ ‘<’ 모양의 홈에 묶은 끈을 荷物에 매달았던 꼬리표형 목간과 달리, 홈이 한쪽에만 있거나(b형) 중간부·하단부에 홈이 있어(d·e형) 끈을 통해 荷物에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47)</sup> 상·하단부에 홈이 있던 c형 목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홈이 목간의 측면을 파놓은 형태인데 반해, 마도3호선 23번 목간은 특이하게도 상단에 계단식(측면 단면; )으로 층을 낸 異形의 홈이 파여 있다(f형). 이 또한 끈으로 하물에 매달기 보다는 부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홈의 개수나 위치는 제각각이지만, 이들 ①-b~e형 목간은 앞의 태안선 목간 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完形인 마도1호선 19·20·55번 목간과 마도2호선 29·44번 목간을 비롯한 ②장방형 목간은 형태가 확인 가능한 목간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고려 목간의 주요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 하물에 연결하기 위한 가공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짐 꾸러미 사이에 놓아두거나 쪼는 ‘갈피형’ 목간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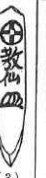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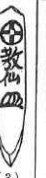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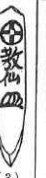

45) 이와 달리 부정형의 홈이 있는 목간은 ①-b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도2호선 29번 목간은 缺落된 흔적으로, 마도1호선 46·47번 목간은 a형(상단 좌우 홈)에 추가하여 파여진 홈인 것으로 각각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46) 하지만 하단부 홈이 목서에 맞닿아 있어 홈이 아니라 缺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7) 임경희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끈을 묶기 위한 홈의 위치는 정해진 것이 없다. 홈은 관례적으로 윗부분에 팠지만 사용 목적에만 부합한다면 어떤 위치든지 상관없이 임의대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2011, 앞의 마도2호선 조사보고서 논고, 438~439쪽).

②장방형에서 홈 이외의 가공이 가해진 ③기타는 5.6% 정도이다. 하단부가 뾰족한 尖形의 목간(b)은 4점이지만, 일본 중세 목간이나 신안선 목간과 같이 V자형으로 뾰족하기 보다는 완만한 각도의 尖形이 대부분이다【그림 2】 참조). 각도가 크지 않아 별도의 기능을 부여하기 어렵다.48) 【표 6】에서 뿐 아니라, 마도3호선 목간의 거의 전부인 ①-a형 목간에서도 하단부가 뾰족한 형태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고려 목간에서 하단부가 뾰족한 형태[尖形]가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제작 시기가 늦은 마도3호선 단계(1265~1268년)에는 하단부 尖形이 거의 사라졌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단이 斜線으로 깎인 목간(c)도 현재로서는 기능적인 측면을 밝혀낼 수 없기에, ②장방형과 함께 ③-a·③-c형을 부착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 고려 목간과 신안선 목간 하단부 尖形 비교

				<table border="1"> <tr> <td>103</td> <td>133</td> <td>233</td> <td>223</td> <td>303</td> <td>333</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1)</td> <td>(16)</td> <td>(31)</td> <td>(57)</td> <td>(3)</td> <td>(3)</td> </tr> </table>	103	133	233	223	303	333							(11)	(16)	(31)	(57)	(3)	(3)
103	133	233	223	303	333																	
																						
(11)	(16)	(31)	(57)	(3)	(3)																	
태안선 10번	마도1호선 17번	마도1호 선 57번	마도2호 선 38번	신안선 첨형 목간																		

48) 태안선 10번 목간, 마도1호선 17번·57번 목간 그리고 마도2호선 38번 목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의 註 28)에서 신안선의 尖形 목간이 연결한 끈을 뒤처리하였다는 역할도 생각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V字 모양이 아닌 ▽ 모양의 尖形으로 가장 뾰족한 태안선 18번·20번 목간이 있지만, 보고서에서 결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 그대로 따랐다.

마지막으로 마도1호선 23번 목간은 유일하게 고려 목간 중에서 상단부에 구멍이 있다(③-b). 애초에 ②장방형 목간이었다가 荷物에 보다 확실히 연결하기 위해 구멍을 뚫어 荷物에 매달렸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③-b형도 연결방식상 ①-a형과 같이 꼬리표형 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려 목간에서 구멍형 목간이 1점 뿐인 점은 앞서 서술한 신안선의 하찰목간에서 12% 가량 차지하는 것과 큰 차이이다.

지금까지 【표 6】과 같이 구분한 고려시대 목간의 형태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하지만 목간의 缺落으로 인해 그 형태가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은 분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려 목간이 하찰목간인 점을 감안하여 하찰목간의 연결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찰목간의 형태는 荷物에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 연결방법은 하물의 포장 및 운반용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荷物의 종류와 하찰목간의 형태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목간의 목서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목간의 형태는 발송처(처)와의 관련성 보다 荷物의 종류와 일정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sup>49)</sup> 더 정확히 말하면 목간의 형태는 짐의 包裝 및 運搬材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찰목간의 형태와 荷物 종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표 7】을 작성하였다.<sup>50)</sup>

---

49) 목간 형태와 발송처(인)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목간의 기재 내용에서 수취인에 비해 발송인이나 발송처를 표기해 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나마 확인되는 사례에서도 마도1호선의 竹山縣이나 大三처럼 동일한 발송처(인)에서 보낸 목간도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50) 完形이나 형태 확인이 가능한 목간 모두에서 물품 종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목간 형태와 물품 종류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물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하찰목간의 형태가 달랐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표 7】 하찰목간의 연결방식과 기재 물품 분석

연결 유형	꼬리표형		부착형		갈피형		
목간 형태	①-a목간 · ③-b목간		①-b~f목간		②목간 · ③-a · ③-c목간		
구분	물품 종류[용기]	목간 번호	물품 종류	목간 번호	물품 종류	목간 번호	
태안선			砂器	1번	砂器…裹	2·9·10번	
마도 1호선	것갈류	(魚)醢[甗]	3번				
		古道醢[甗]	9번	太	21번	白米	11번
		蟹醢[甗]	37번	租	29번	곡물류 木(麥)	17번
	竹口	8번			太	18번	
	未醬	10 · 16 · 35 · 58 · 67번			正租	19 · 20번	
	곡물류	粟	10 · 12번				
		木麥	10 · 68번				
		白米	15 · 23 · 56번				
		中米	48번				
		太(豆)	25 · 38 · 39 · 46 · 65 · 71번				
租	59 · 60 · 62 · 63 · 64번						
마도 2호선	곡물류	太	3 · 12 · 14 · 24 · 31 · 42번				
		白米	32 · 35번	太	1번	未醬	29번
		中米	18 · 37 · 45 · 46번	中米	2번		
	未醬	4 · 7 · 22번					
	麴	19 · 20번					
	眞[樽]	23 · 27번					
卵醢	26 · 28번						
마도 3호선	해산물	生鮑[甗]	3 · 32번				
		魚油[甗]	8 · 26 · 33 · 35번	皮麥	23번		
		乾鱗	9 · 13 · 28번				

		沙魚·[箱子]	20번				
젓갈		生鮑醃 [缶]	15 · 24번				
		蜆醃 [缶]	25 · 27번				
		豸脯·[箱子]	19번				
		布	12번				

앞의 【표 6】의 데이터에 따르면, 고려 목간의 전형적인 형태인 ①-a형 목간의 비율이 태안선은 40%대로, 70~90%대인 마도1·2·3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sup>51)</sup> 이것은 아마도 짐[荷物]의 종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추측컨대, 곡물류나 해산물 등의 다양한 荷物を 실었던 마도1·2·3선과 달리 태안선은 陶瓷類를 주로 적재하였기 때문에 포장 및 운반재의 차이로 인해 하찰목간의 형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표 7】의 태안선 9·10번 목간 목서에 ‘沙器一裹’로 표현된 사기 한 꾸러미는 도자기 기형별로 층을 이루어 船體에 적재되었다. 이때에 함께 출수되었던 원통 및 사각형 막대 등의 포장용 목재, 결박재(갈대·새끼줄) 그리고 완충재(짚)를 이용하여 새끼줄로 도자기를 묶어 포장하였다.<sup>52)</sup> 註 51)번 내용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 포장재에는 ‘꼬리표형’

51) 앞의 【표 6】 내용을 근거로 목간을 荷物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각 침물선의 목간을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연결 유형	해당 형태	태안선		마도1호선		마도2호선		마도3호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꼬리표형	①-a · ③-b	4	44.4%	38	71.7%	33	82.5%	22	95.7%
부착형	①-b~f	2	22.2%	4	7.5%	2	5%	1	4.3%
감피형	② · ③-a · ③-c	3	33.3%	11	20.8%	5	12.5%	0	0%
합계		9	100%	53	100%	40	100%	23	100%

52) 김병근, 2008, 「수증발굴 고선박의 하물적재 방법」 『고려청자 보물선』, 국립해양유

목간과 더불어, 도자기에 직접 끼워 넣고 함께 포장하는 ‘부착형’이나 도자기 꾸러미 사이에 넣거나 꿰는 ‘갈피형’ 목간도 많이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3)</sup>

마도1호선 목간의 荷物 대부분은 白米·콩·조[粟]·메밀[木麥] 등의 곡물류이고 젓갈류·메주[末醬]·대나무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도2호선에서는 곡물류와 메주·누룩[麴]·참기름[眞]·알젓갈[卵醃]이, 마도3호선은 생전복·물고기기름·홍합 등의 해산물과 젓갈류·개고기포·皮麥·布 등이 각각 확인된다. 마도1·2호선이 곡물류를 주로 적재한 데 반해, 마도3호선은 해산물이 주요한 물품인 점이 다르다. 그렇지만 세 침물선의 목간은 ①-a형의 상단부 좌우에 홈이 있는 ‘꼬리표형’이 대부분인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꼬리표형’ 목간 목서에 물품 종류와 함께 저장 용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마도1·3호선에서는 젓갈류를 향아리[缸]에 담았고, 마도3호선에서는 해산물을 향아리[缸]에, 상어[沙魚]와 개고기포[豸脯]를 상자[箱子]에 각각 포장하였다. 그리고 마도2호선에서는 참기름[眞]을 樽이라는 도기에 담았다. 따라서 물기가 있는 하물의 경우는 도자기류를 포장 및 운반 용기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양이 가장 많은 곡물류는 어떠한 형태의 포장용기를 사용하였을까. 마도1·2·3호선에서 대바구니가 모두 출수되었지만, 그것 보다는 마도1호선에서 출수된 벼섬으로 추정되는 포장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圖經』에서 보이는 草苫이 참고 된다.<sup>54)</sup> ‘쌀·밀가루·팥나무·숯 등을 담았고, 망태기 같은 형태를 하여 馬匹에 싣고 운반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草苫은 포장 및 운반 용기로 편리하였

물진서관.

53) 임경희는 목간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꼬리표형 목간 4점, 부착형 3점 그리고 갈피형 1점으로 구분하였다(2009, 앞의 논문, 459쪽).

54) “草苫之用 猶中國之有布囊也 其形如絡 結草爲之 凡米麵薪炭之屬 悉用以盛 山行不利車 多以騾馬 裝載而行.”(『高麗圖經』 卷32, 器皿3, 草苫).

던 것 같다. 草苫과 같은 벚섬에는 다양한 종류의 곡물류 뿐 아니라 마도 1·2호선 목간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메주[末醬]도 담았다. 이것은 꼬리표형인 마도1호선 10번 목간 목서의 “조 10석, 메필 3석과 함께 메주 2석도 넣었다”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草苫에 땀나무와 숯도 담았다는 앞의 『고려도경』 내용을 참고하면, 그 쓰임새가 다양하여 마도2호선 목간에서 확인되는 누룩(麴)도 草苫을 포장재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마도1호선의 대나무 제품과 마도3호선의 布만이 포장재를 알 수 없지만 이들 荷物에도 형태 분류상 ‘꼬리표형’ 목간이 연결되어 있었다.

태안선과 달리 다양한 물품을 실었던 마도1~3호선을 비교해 보면, 앞의 【표 6】과 같이 마도3호선은 ①-a형 목간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 또한 포장 및 운반 용기에 따른 목간 형태와 연결방식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해산물이나 젓갈을 담은 항아리(甔)나 상자에 부착하기에는 목간의 홈에 끈으로 매듭 하여 매달은 ‘꼬리표형’ 목간이 편리하였다. 이들 세 침물선의 목간에서는 【표 7】과 같이, 대부분의 ‘꼬리표형’ 뿐 아니라 ‘부착형’과 ‘갈피형’도 일부 확인된다. 그런데 ‘부착형’과 ‘갈피형’ 목간에서 확인되는 물품은 모두 곡물류이다. 물론 마도3호선 28번 목간의 메주는 앞서도 밝혔듯이, 곡물류와 함께 草苫과 같은 벚섬을 포장용기로 사용하였다. 결국 곡식이나 메주 등을 담았던 벚섬에 ‘꼬리표형’ 뿐 아니라 ‘부착형’이나 ‘갈피형’ 목간이 연결되기도 하였지만, 젓갈이나 해산물을 담은 항아리(甔)나 참기름을 담았던 樽과 같은 도자기류, 그리고 상자와 같은 포장재에는 부착형이나 갈피형 목간이 잘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벚섬 형태의 포장재는 하찰목간을 연결하기가 용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목간을 이용하였지만, 甔·樽 등의 도자기과 같이 하찰목간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의 포장 용기는 홈과 같이 확실한 연결 부위가 있는 ‘꼬리표형’ 목간만을 사용하였다.

## 맺음말;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형태 비교

본 연구는 근래에 네 척의 古船體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하찰목간의 형태적 특질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였다. 175점이라는 많지 않은 수량과 부족한 연구 현황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축적된 일본학계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동아시아 중세 목간과의 비교를 목표로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해당 내용을 재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앞선 Ⅱ·Ⅲ장에서는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비교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안선 목간과 고려 목간의 형태를 하찰목간의 연결방식에 직결되는 상·하단부의 형상을 기준으로 간소하게 분류하였다. 신안선 목간의 형태는 상단부는 홈형·장방형(기본형)·구멍형으로, 하단부는 尖形·圭形·方形으로 각각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반해 고려 목간의 경우는 일본 중세나 신안선 목간과 달리, 하단부의 형상이 목간 분류의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신안선 하찰목간과 고려 하찰목간의 상단부 형태를 앞의 【표 4】와 【표 6】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상단부 좌우에 홈이 있는 목간의 비율뿐 아니라 장방형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였다. 두 사례에서 70% 정도 확인되는, 荷物에 연결하기에 용이한 홈형 목간이 동아시아 중세시기 하찰목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10% 가량의,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장방형의 목간도 하찰목간의 한 형태로 자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려 목간에서 단 1점만이 확인되는 구멍형 목간은 신안선 목간에서 12%정도, 草戶목간에는 60% 이상이 각각 확인되었다. 草戶목간

의 경우는 하찰목간 뿐 아니라 메모용 목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간의 용도에 따른 차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하찰인 신안선 목간에서 구멍형 목간이 10% 이상 활용된 점은 고려 하찰목간과의 큰 차이이다. 메모용 목간 뿐 아니라 일본 중세시기에 권리 보증의 茅札·山札, 過書札 등의 목간 상단부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것은 구멍형 목간이 휴대하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sup>55)</sup> 이처럼 동아시아 중세 목간은 용도에 따라 상단부의 형태가 달랐다. 고려 목간과 신안선 목간은 荷札이었으므로 홈형 목간이, 개인 메모가 다수인 일본의 草戸목간은 角材의 구멍형 목간이 각각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목간의 상단부 형태와 달리, 고려 목간의 하단부는 그 형태가 부정확하여 구분이 쉽지 않았다. 뾰족한 형상[尖形]으로 분류한 비율이 전체 목간의 4.7%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그마저도 너무 무디고 각도가 없어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이 점은 신안선 하찰 목간에서 尖形의 하단부가 38%에 이르는 통계와 대조적인 부분이다. 바꾸어 말해 고려 하찰목간의 연결 부위로서 상단부 형태가 차지하는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고려시대 하찰목간을 荷物의 연결방식에 따라 꼬리표형, 부착형 그리고 갈피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형태에 따라 목간을 구분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고려시대 짐의 종류에 따라 포장 및 운반재가 달랐고, 이에 따라 포장재에 연결된 荷札의 형태도 결정되었다.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와 하물의 종류를 분석해 본 결과, 벗섬 형태의 포장재는 세 유형의 하찰목간이 연결되었지만, 甁·樽과 같은 陶器類의 포장용기는 하찰의 연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홈과 같이 확실한 연결 부위가 있는 ‘꼬리표형’ 하찰목간만을 활용하였다.

---

55) 水藤 眞, 앞의 책, 166쪽.

이러한 고려 하찰목간과 달리 신안선 목간은 荷物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상단부의 홈과 구멍 뿐 아니라 하단부의 尖形도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은 신안선이 高價의 다양한 물품을 국제교역을 통해 장거리 운항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하찰과 짐[荷物]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하단부의 뾰족한 형태가 상단부 만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신안선의 하찰목간도 고려 하찰목간과 같이 연결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또 다른 분류체계로 일정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sup>56)</sup>

---

56) 신안선 하찰목간도 앞의 고려 하찰목간처럼 꼬리표형·부착형·갈피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능을 담당한 하단부 尖形의 높은 비율을 고려하면 고려 목간 형태에 따른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안선 하찰목간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에 다시 다룰 계획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4, 『新安海底遺物』(資料編 Ⅱ)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5, 『新安海底遺物』(資料編 Ⅲ)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8, 『新安海底遺物』(綜合編)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高麗靑瓷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  
발굴 조사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마도 3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 2. 논저

- 尹武炳, 1988, 「木牌」 『新安海底遺物』(綜合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김병근, 2005, 『수중 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이용현, 2006, 「신안 해저발견 목간의 형식과 선적(船積)」 『韓國木簡基礎研  
究』, 신서원  
임경희, 2009, 「태안 대섬 고려 목간의 분류와 내용」 『高麗靑瓷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임경희, 2010, 「마도 1호선 목간의 분류와 주요 내용」 『태안마도 1호선 수  
중발굴조사 보고서』  
임경희, 2011, 「마도2호선 목간의 분류와 내용 고찰」 『태안마도 2호선 수중  
발굴조사 보고서』  
임경희, 2011, 「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목간과 문자』 8, 한국목간  
학회

- 임경희, 2012, 「해양 발굴 문자 자료, 고려시대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  
역사연구회 발표자료
- 志田原重人, 1981, 「草戸千軒町遺跡出土の中世木簡-形態を中心に-」 『木簡  
研究』 3
- 廣島縣草戸千軒町遺跡調査研究所, 1982, 「總說」 『草戸千軒-木簡1-』
- 西谷正, 1985・1986, 「新安海底發見の木簡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  
要』 30・31
- 岡内三眞, 1987, 「新案沈船出土の木簡」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岡崎  
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
- 水藤 眞, 1995, 『木簡・木札が語る中世』, 東京堂出版
- 下津間 康夫, 1996, 「木簡類の変遷と諸問題」 『草戸千軒町遺跡調査報告V』,  
廣島縣草戸千軒町遺跡調査研究所編
- 廣島縣立歴史博物館編, 1999・2000・2004, 『草戸木簡集成』 1・2・3
- 友田那々美, 2003, 「古代荷札木簡の平面形態に関する考察」 『木簡研究』 25
- 石井 進, 2005, 『石井進著作集』 第10卷, 岩波書店

## Abstract

# The Current Status of Studies of Medieval East Asian Mokgan(Wooden Tablets) and Comparison of their Shapes

Han, Jeong-Hun

This study was prepared to look into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oryeo Dynasty Hachal Mokgan(Baggage tag wooden tablet), recently taken out of four sunken ships. The shapes of the Goryeo Dynasty Hachal Mokgan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like medieval Japanese wooden tablets or Sinan-ship Mokgan, and based on the contents, a comparison of the shapes was attempted. For this purpose, they were simply classified based on the shapes of the upper section and lower section directly linked to the connection method of wooden tablets.

Accordingly,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shapes of the Sinan-ship Hachal Mokgan and the Goryeo Dynasty Hachal Mokgan, it was found that wooden tablets in the shape of a groove, which are easy to connect to baggage, were the typical Medieval East Asian Hachal Mokgan. However, wooden tablets in the shape of a hole, which are easy to carry, so they were widely used in medieval Japan were identified in about 12% of Sinan-ship Mokgan, while only one piece was identified in the Goryeo Dynasty Mokgan. This can be understood as a difference in the shape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connecting method of the wooden tablet. Also, as compared to Goryeo Dynasty Hachal Mokgan, Sinan-ship Mokgan

actively utilized the hole on the upper section and the pointed shape of and lower section to connect to baggage. Probably, it is very likely that this was a measure to connect Hachal more firmly to Sinan-ship, since it went long voyages with various expensive goods through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an opinion was suggested as follows: It would be a lot clearer and more effective that classifying Goryeo Dynasty Hachal Mokgan into tag type, attachment type and bookmark type according to the method of connecting baggage, rather than classifying simply according to shape. Packing material, transport material or the shape of the baggage tag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kind of baggage.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writing in ink on the Goryeo Dynasty Hachal Mokgan, the packing material in the shape of a sack of rice was connected to three types of Hachal Mokgan, while the packing container in the shape of pottery was used only for the 'tag type' Hachal Mokgan with a certain connecting part like a groove or hole was utilized.

Keywords : Hachal Mokgan, Sinan-ship Mokgan, Shape of wooden tablet, Wooden tablet in groove shape, Wooden tablet in hole shape

